구약의 타법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레위기 19장의 중심신학 고찰:
5개의 정형화된 표현들을 중심으로

박철우 | 나사렛대

1. 서론

레위기 19장은 성결법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이며, 신학적으로 전승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1] 이 본문은 구약의 핵심적 신학의 유기적 집약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구조적 독특성을 가지고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나사렛대학교의 연구비 지원과제임.

1) 마르틴 노트는 레위기 19장이, 현재 전승된 형태로는 여러 상이한 생활영역들이 무질서하게 섞여 나오기는 하지만, 대개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 법전(Kodex)라고 본다: Martin Noth, 「레위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168-169; 원제는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J. Morgenstern, "The Decalogue of the Holiness Code," *HUCA* 26(1955), 1-27("the very heart of the Holiness Code", 1); 좀 더 근자에 밀그롬은 레위기 19장을 레위기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의 중심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Jacob Milgrom, *Leviticus 17-22* (AB, New York: Doubleday, 2000), 212-245; cf. Mary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34-240에서 더글라스는 18, 20장을 외곽틀로 하여 중심에 19장이 핵심의 역할을 하는 본문임을 지적한다. 박철우, "성결법 (레위기 17-26장)의 구조와 신학 연구", 「신학사상」 70집(1990년 가을), 589-642.

www.kci.go.kr

있으며 정형화된 표현을 통하여 그 고유한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레위기 19장에 사용된 5개의 정형화된 중요 표현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신학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2] 특히 이 본문들과 구약의 타법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본문들의 전승사적 특징을 검토하며 그 발달 과정과 신학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레위기 19장의 본문 분석은 레위기 17–26장을 독립된 전통으로서의 성결법전을 전제로 한 연구와 그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3] 김진명 박사는 2007년 레위기 19장의 신학 분석을 정경적 차원에서 전개한 바가 있다. 필자는 성결법전을 독립적 전통으로 보는 오랜 학계의 견해(R. H. Pfeiffer, M. Noth, H. J. Boecker, G. A. F. Knight, 등)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특히 구약 전통들의 발전과정을 전제로 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레위기 19장은 1–18절과 19–37절이 병행을 이루는 이중구조로 구성된 단일체라는 관찰을 전제로 한다.[4] 서론에 이어서 II장 본론부에서 5개의 정형화된 본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레위기 19장의 신학적 특성과 중요성과 성경전반에서의 신학적 위치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2) 여기에서 '정형화된 표현'이라 함은 구약의 특정한 전승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신학적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된 표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레위기 19장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하며, 수사학적 특징과 신학적 특징을 보여주며, 전승사적으로 의미있는 대표적인 5개의 정형화된 표현만을 선택하였다. 특히 본 논문 2, 5)에서 다루어지는 표현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앞의 다른 표현들[2, 1), 2), 3), 4)]과 내용적 차원에서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고 레위기 19장안에서도 신학적 결론부의 역할을 하는 표현이며 신약에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전개되어있는 표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마지막 장[2, 5)]에서 가장 길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짐.

3)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Th.D. 논문, 2007.

4) 박철우, "성결법 (레위기 17–26장)의 구조와 신학 연구"; 레위기 19장의 삼단양식적 특징에 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논지와 무관함으로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구약학회 89차 춘계학술발표회(2012. 4. 20)에서 레위기 19장의 저자는 정형화된 표현들뿐 만아니라 큰 틀의 구조적 차원에서도 언약법전, 십계명, 신명기 법전, 성결법전과 밀접한 병행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cf.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www.kci.go.kr

2. 정형화되어 있는 5개 표현들의 전승사적, 신학적 분석

1) 나는 야웨다(אֲנִי יהוה 아니 야웨)

이 야웨의 절대성 선포는 이 장에 15회가 나온다('나는 야웨 너희의 하나님이다'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아니 야웨 엘로헤켐: 3, 4, 10, 25, 31, 34, 36절]; '나는 야웨다' (אֲנִי יהוה 아니 야웨[축소형: 12, 14, 16, 18, 28, 30, 32, 37절). 이와 유사한 표현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5절에서 언급된다('나는 네 하나님 야웨다'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아노키 야웨 엘로헤카]). '나는 너희 하나님 야웨다'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아니 야웨 엘로헤켐)라는 표현은 신명기 29장 6절에 나오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야웨다' 라는 표현이 신명기 5장 9절에 나온다(אָנֹכִי יהוה אֱלֹהֶיךָ 아노키 야웨 엘로헤카). 이처럼 신명기에는 이 특별한 구문 안에서 1인칭 '아니' 로 표현된 것이 1회, '아노키' 로 표현된 것이 1회 나온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 구문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나' 를 가리킬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처럼 '아노키' 를 주로 사용한다(예를 들어, 신 4:1, 2[2회], 8, 22, 40; 5:1, 5, 6, 9, 31, 등).

'너의 하나님 야웨' 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 높은 빈도로 자주 나오며(야웨 엘로헤카[출 20: 2, 5, 7, 10, 12]), 언약법전(출 20:22–23:33)[5]에서는 1회 나온다(출 23:19[야웨 엘로헤켐]). 신명기에서는 이 표현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 야웨' (יהוה אֱלֹהֵינוּ 야웨 엘로헤누)라는 표현으로도 정형화되어 나온다. 신명기 5장 6–21절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야웨 엘로헤카' 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보다 4회 더 나온다는 사실은 신명기 법전(신 4:44–30:20)[6]에서 이 표현은 더욱 보편화

---

5) 언약법전의 범위, cf. John I. Durham, *Exodus* (Waco: Word Books, 1987), 305–337; Brevard S. Childs, *Exodus* (OTL; London: SCM Press, 1974), 440–496.

6) 확대된 신명기 법전, Hans Jochen Boecker,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e Old Testament and Ancient East* (Minneapolis: Augusburg, 1980), 178; cf. A. D. H. Mayes, *Deuteronomy* (NCBC;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1), 42, 372–374, 411.

www.kci.go.kr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신 5:6, 9, 11, 12, 14, 15[2회], 16[2회]).

'너희의 하나님 야웨' (יהוה אֱלֹהֵיכֶם 야웨 엘로헤켐): 신 1:10, 21, 25, 26, 30, 31, 32; 3:18, 20, 21, 22; 4:2, 4, 19, 23; 5:32, 33; 6:1, 15(2회), 16, 17, 21; 8:20; 9:16, 23; 10:17; 11:2, 13, 22, 25, 27, 27, 28, 31; 12:4, 5, 7(2회), 9, 10, 11, 12; 13:3(2회), 4, 5(2회); 14:1, 21; 20:4, 18; 29:6, 11; 31:26.

'너의 하나님 야훼' (יהוה אֱלֹהֶיךָ 야웨 엘로헤카): 신 2:7, 30; 4:3, 10, 21, 23, 24, 29, 30, 31, 40; 5:6, 9, 11, 12, 14, 15(2회), 16(2회); 6:2, 5, 10, 13; 7:1, 2, 6(2회), 9, 12, 16, 18, 19(2회), 20, 22, 23, 25; 8:2, 5, 6, 7, 10, 11, 14, 18, 19; 9:3, 4, 5, 6, 7; 10:9, 12(3회), 14, 20, 22; 11:1, 12(2회), 29; 12:15, 18(3회), 20, 21, 27(2회), 28, 29, 31; 13:10, 12, 16, 18(2회); 14:2, 23(2회), 24, 25, 26, 29; 15:4(2회), 6, 7, 10, 14, 15, 18, 19, 20, 21; 16:1(2회), 2, 5, 6, 7, 8, 10(2회), 11(2회), 15(3회), 17, 18, 20, 21, 22; 17:1(2회), 2(2회), 8, 12, 13, 14, 15, 16(2회); 19:1(2회), 2, 3, 8, 9, 10, 14; 20:1, 13, 14, 16, 17; 21:1, 5, 10, 23; 22:5; 23:5, 14, 18(2회), 20, 21(2회); 24:4, 9, 13, 18, 19; 25:15, 16, 19(2회); 26:1, 2(2회), 4, 5, 10(2회), 11, 13, 14, 16, 19; 27:2, 3, 5, 6(2회), 7, 9, 10; 28:1(2회), 2, 8, 9, 13, 15, 45, 47, 52, 53, 58, 62; 29:12(2회); 30:1, 2, 3(2회), 4, 5, 6(2회), 7, 9(3회), 16(2회); 30:20; 31:3, 12, 13.

* 유사형: '우리 하나님 야웨' (יהוה אֱלֹהֵינוּ 야웨 엘로헤누): 신 1:6, 19, 20; 2:29, 33, 36, 37; 3:3; 4:7; 5:2, 25, 27(2회); 6:4, 20, 24, 25; 29:15, 18, 29.

'우리 하나님 야웨'라는 정형화된 표현이외에, 단순히 '우리 하나님' (אֱלֹהֵינוּ 엘로헤누)이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3회 나온다(신 1:41; 31:17; 32:3). 그러나 대부분 '야웨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야웨)라는 표현이 지배적이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관계로 결합된 특수한 관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7] 이 표현은 언약 법전이나 십계명에는 나오지

www.kci.go.kr

않는다.

'나는 야웨 너희의 하나님' 이라는 표현은 십계명에서 출애굽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온다(출 20:2).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이적과 기사의 하나님' 이시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하나님이시며, 언약에 순종하여 절대적 충성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이심이 선포된다. 위의 모든 본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표현을 통하여 누가 절대적 주권자인가를 명백히 선포하는 것이며,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선포가 이 본문들의 근본적인 신학적 전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표현은 출애굽 3장 14절의 하나님의 절대성 선포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이며 호세아, 이사야, 에스겔 등의 여러 본문에 나타나는 말이며,[8]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선포이다.[9]

이 표현이 성결법전 전체(레 17–26)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특히 레위기 19장에서 15회에 걸쳐 나타나며 이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다. 이 표현(אֲנִי יהוה אֱלֹהֵיכֶם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웨다)은 레위기에서 레위기 11장 44–45절에 언급된 이후, 대부분 성결법전에서 나온다. 즉, 레위기 18:2, 4, 30; 19:2, 3, 4, 10, 25, 31, 34, 36; 20:7, 24; 23:22, 43; 24:22; 25:17, 38, 55; 26:1, 13; 26:44–45에서 나온다. 짧은 형태(אֲנִי יהוה 나는 야웨다)는 레

---

7)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과 유사한 표현이다; cf. John I. Durham, *Exodus* (Waco: Word Books, 1984), 75–76; William H. C. Propp, *Exodus 1–18* (AB; New York: Doubleday, 1998), 273.

8) Roland de Vaux, *Historia Antigua de Israel*, I, (Madrid: Ediciones Cristiandad, 1975), 339–347; 원제는 *Histoire Ancienne d'Israël*, (Librairie De Coffre, 1971); Edmond Jacob, 「구약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 51–59; 원제는 *Theologie de L'Ancient Testament* (Neuchatel: Delachaux et Niestle Editeurs, 1955); cf. אָנֹכִי יהוה (호 12:9; 13:4); אֲנִי יהוה (사 41:13; 43:3; 45:7, 18, etc), 특히 에스겔서에 '나는 야웨다' 라는 표현이 91번에 걸쳐 나온다; John I. Durham, *Exodus*, 75–76, 283–284; W. Zimmerli, *I Am Yahweh*, ed. Walter Brueggeman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2), 1–28.

9)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께 적용된다(마 14:27; 요 6:20, 35, 41, 48, 51; 8:12; 10:7, 9, 11, 14; 15:1, 5; 계 1:8, etc. ἐγώ εἰμι, I am), George R. Beasley–Murray, *John* (Waco: Word Books, 1987), 89–90; cf. Barnabas Lindars, *The Gospel of John*,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82), 259.

www.kci.go.kr

위기 18:5, 6, 21; 19:12, 16, 18, 28, 30, 32, 37; 21:12; 22:2, 3, 8, 30, 31, 33; 26:2에 나온다. 특히 레위기 25:38; 26:13, 44–45; 22:33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출애굽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나온다. 그리고 레위기 20:8, 24, 26; 21:8, 15, 23; 22:9, 32에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심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야웨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신명기 법전에서 강조되고 정형화된 이 표현은 성결법전과 레위기 19장에서 신학적 기초로 나타난다. 특히 19장에서는 15회에 걸쳐 나오며 성결법전 전체의 30번 중 1/2이 이 한 장에 나온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의 매우 특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결법전과 신명기 법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십계명과의 관계도 밀접함을 보여준다.[10] 언약법전에서 보다 더 보편화된 함축적 형태로 언약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장 전체의 신학적 근간이 하나님의 절대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너희의 하나님인 나 야웨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9:2)

레위기 19장의 나머지 부분(3–37절)은 이 거룩에 대한 명령선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1] 이 표현은 이장의 중심선포이다. 그 나머지 3–37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언약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상황적 법조항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이 거룩한 삶을 직간접으로 암시하는 표현들이 반복된다. 이 중요한 표현은

---

10) A. D. H. Mayes는 십계명은 신명기적 편집자(deuteronimic editor)에 의해 출 20장에 삽입된 후대의 법이라고 본다(A. D. H. Mayes, *Deuteronomy*, 162–165). 그러나 그 기초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는 부정의 여지가 없다.

11) John E. Hartley, 「레위기」, 622(이 장 전체가 거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학적 관찰: 코데슈 아도나이[8절]; 코데슈[24절]; 쉠[2회, 12절]; 경외[하나님에 대한 경외: 14b, 32b절; 성소에 대한 경외, 30a절; 부모공경, 3aα 절;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켐, 2, 3, 4, 10, 25, 31, 34, 36절; 아니 아도나이, 12, 14, 16, 28, 30, 32, 37절]; 할랄[12, 29a절]).

www.kci.go.kr

레위기 11:44–45; 20:7, 26; 21:8에 나오며, 신명기 7:6; 14:2; 26:19; 28:9에 나온다. 레위기 20:8, 24, 26; 21:8, 15, 23; 22:9, 32에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는 야웨다' (אֲנִי יהוה 아니 야웨)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출애굽기 22장 26절(언약 법전)에는 כִּי־חַנּוּן אֲנִי(키 한눈 아니/내가 자비로운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조상, כִּי קָדוֹשׁ אֲנִי(키 카도슈 아니/내가 거룩하니, 레 19:2)와 유사하다. 이 거룩한 백성과 관련하여 출애굽기 19장 6절(시내산 언약예식본문)에서는 גּוֹי קָדוֹשׁ(고이 카도슈)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이 언급된다. 이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표현하면서 위의 표현과 같은 עַם קָדוֹשׁ(암 카도슈)를 사용한다. 출애굽기 19장 6절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물론 콘텍스트는 다르다.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고 회개한 후에 받게 될 축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전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질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암 카도슈')은 신명기 법전에서 곧 신명기 14장 2절에서도 정형화된 표현으로 나오며 그들이 언약백성임을 나타낸다(עַם קָדוֹשׁ אַתָּה לַיהוה אֱלֹהֶיךָ 암 카도슈 아타 라도나이 엘로헤카/너는 네 하나님 야웨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곧 너를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cf. 신 14:21, עַם קָדוֹשׁ אַתָּה לַיהוה אֱלֹהֶיךָ 암 카도슈 아타 라도나이 엘로헤카/너는 네 하나님 야웨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12] 이 표현이 정형화된 표현이라는 사실은 바로 앞 절인 신명기 14장 1절과의 비교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복수 형태로 서술하는데, 바로 이

12) A. D. H. Mays가 본래의 신명기서(the original book of Deuteronomy)라고 부르는 부분들이다(A. D. H. Mays, 48).

www.kci.go.kr

어지는 이 표현의 경우 단수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신명기 14장 2절의 표현이 이처럼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정된 표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70인역에서도 그대로 직역이 되어 있다(Ὅτι λαὸς ἅγιος εἶ Κυρίῳ τῷ Θεῷ σου, For thou art a holy people to the Lord thy God). 신명기 26장 19절에서도 정확하게 정형화된 이 단수 표현으로 나온다.[13] 이것은 동일한 전승사적 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14] 전체적으로 신명기 법전에서는 이와 같이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15]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의 하나님인 나 야웨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전개한다. 레위기 19장의 이 내용은 신명기 법전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리고 전개하는 방법도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것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좀 더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르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선포가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선포의 기본배경이며 이유가 되어있다는 점이다(레 11:44–45; 19:2; 20:7, 26; 21:8, 나 야웨가 거룩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 '하야 היה동사' 와 연결되어 나온다는

13) A. D. H. Mays는 이 본문을 신명기적 편집자(late deuteroniminstic editor)의 것으로 추정한다. 46, 337–339.

14) A. D. H. Mayes, *Deuteronomy*, 184–185; A. D. H. Mays는 이 표현과 출 19:3–8과의 관계에 있어 Wildberger가 이 본문(출 19:3–8)을 신명기적 언약 전승이전의 전승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반하여, 이 양자 사이에 차이점은 있지만 이것을 다른 전승층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점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A. D. H. Mays, 339–340); cf. Hans Wildberger, *Jahwes Eigentumsvolk* (Zurich: Zwingli Verlag, 1960), 18f. 92ff.

15) A. D. H. Mayes, *Deuteronomy*, 339.

www.kci.go.kr

사실이다.[16]

이 특별한 표현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정형화된 표현으로 이해되어 전승된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서 그대로 직역이 되어 나온다(ὅτι Ἅγιοι ἔσεσθε ὅτι ἐγὼ ἅγιός/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히브리어의 어순과 수도 일치한다(Ἔσεσθε οὖν ὑμεῖς τέλειοι ὡς ὁ πατὴρ ὑμῶν ὁ οὐράνιος τέλειός ἐστιν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perfect: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17] 여기에서 '온전하라'는 명령은 히브리 본문처럼 2인칭 복수 명령으로 나온다(Ἔσεσθε, 직설법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 2인칭 복수, 명령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이를 통해 주님 안에서의 성숙한 사랑의 삶이 곧 거룩한 삶임을 강조한다. 이 표현을 산상수훈의 결어부에 놓음으로써 이것을 레위기 19장과 동일시한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을 산상수훈 차원으로 의미를 확대해서 이해하셨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레위기 11장 44-45절; 19장 2절; 20장 7, 26절의 콘텍스트를 감안할 때, 제의적 차원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풍습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안에서 성숙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레위기 19장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본문이다.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의 기초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6) 레위기에서는 여기에서처럼(레 19:2; 20:7, 26; 11:44-45)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명령과 이스라엘의 의무가 언급되는 한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이 공존한다(레 20:26; 21:8); 출애굽기 22:27(언약 법전)에는 '키 한눈 아니'(내가 자비로운 자)라는 유사한 구조가 나오지만, 이것은 레위기 19:2에서처럼 거룩한 사람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단지 하나님의 속성만을 나타낸다.

17) 단지 마 5:48에서는 MT '키'의 헬라어 직역인 ὅτι(70인역, ὅτι) 대신 ὡς(as, like)를 사용하나 문제의 핵심인 전체적 내용과 동사의 구조는 동일함.

www.kci.go.kr

3)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וְיָרֵאתָ מֵאֱלֹהֶיךָ 베야레타 메엘로헤카)

이 표현은 성결법의 정형화된 표현으로서 레위기 25장 17, 36, 43절에도 나온다. 이 말은 레위기 19장14절(전반부[레 19:1–18])에 나오는 말로서 32절(후반부[레 19:19–37])에서 반복된다.[18] 이 어형은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신명기 법전에서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고 명령할 때, תִּירָא אֶת־יהוה אֱלֹהֶיךָ(티라 에트 야웨 엘로헤카)의 형식을 취한다(신 6:2, 13; 10:20). 그리고 신명기 13장 4(MT 5)절과 31장 12절에서 복수형의 명령형으로 나온다(תִּירָאוּ 티라우, '야레' 의 칼 미완료 2인칭 복수; cf. 신 31:12[וְיָרְאוּ 베야르우, יָרֵא의 칼 미완료 3인칭 복수). 그러나 성결법전에서는 아주 정형화된 형태로 나온다.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는 표현은 복수형으로 정형화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תִּירָאוּ 티라우[아니 야웨], יָרֵא의 칼 미완료 2인칭 복수, 레 19:30; 26:2 מִקְדָּשִׁי תִּירָאוּ אֲנִי יהוה). 이것은, 성결법전은 정형화된 표현을 바탕으로 성경의 내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레위기 19장에서 이것이 '아니 야웨' 와 연결되어 나오며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레위기 25장 17절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에서 설명적 표현으로 나오는데 반해, 레위기 19:14, 32에서는 '나는 야웨다' 라는 간결체로 선포된다. 이 두 문장은 여기에서 독특한 병행을 이루며 이스라엘이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은 절대주('아니 야웨')이심을 강조한다(וְיָרֵאתָ מֵאֱלֹהֶיךָ אֲנִי יהוה). 이러한 형태의 강조용법은 다음의 용례(4. 안식일을 지켜라; 5.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에서도 볼 수 있다.

4) 안식일을 지켜라

레위기 19장 3절(전반부)에 '샤브토타이 티슈모루' שַׁבְּתֹתַי תִּשְׁמֹרוּ(You

18) 이것은 레위기 19장이 1–2절과 37(36)절이 병행을 이루며(inclusio), 3–36절에서 법조항을 다루고, 동시에 레위기 19장의 전반부(1–18절)와 후반부(19–37절)가 내용상의 병행을 이루고 있는 이중구조로 구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cf. 박철우, "성결법(레위기 17–26장)의 구조와 신학 연구";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www.kci.go.kr

shall keep my sabbaths)는 30절(후반부)에서도 반복된다. 여기에서 안식일은 부모공경의 명령과 함께 연결되어 나오며 그 결어에는 '나는 야웨 너희 하나님이다'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아니 야웨 엘로헤켐)라는 표현이 연결되어 나온다. 30절에서도 두 개의 명령이 연결되어 나온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연결되어 나오며, 결어에는 '나는 야웨다' (אֲנִי יהוה 아니 야웨)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둘 다 동일하게 2인칭 복수형을 취하고 있으며(תִּשְׁמֹרוּ 티슈모루), 안식일도 복수형으로 나온다(שַׁבְּתֹתַי 샤브토타이). 이와 유사한 용례는 레위기 26장 2절에만 나온다. 다른 법전들에서는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이 다른 동사와 함께 연결되어 나온다. 십계명(출 20:8)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זָכוֹר אֶת־יוֹם הַשַּׁבָּת 자코르 에트 욤 하샤바트), 신명기 법전(신 5:12)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שָׁמוֹר אֶת־יוֹם הַשַּׁבָּת 샤모르 에트 욤 하샤바트)로 나오며, 동사 형태는 분사 절대형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레위기 19장보다 더 후기 자료(P 문서)로 추정되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레위기 19장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고(2인칭 미완료), 출애굽기 31장 14, 16절에서 שמר '샤마르' 동사 2인칭 복수형이 나오나, 안식일은 '나의' 라는 말이 빠진 채 단수형으로 나온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제사장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성결법전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다.[19] 이 표현은 레위기 19장 성결법의 특징적 면모를 다 담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언급되고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웨다'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19) 성결법전(H)와 제사장 자료(P)와의 역사적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Cf. Israel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Minneapolis: Fortress, 1995; Jacob Milgrom, *Levitic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필자는 여기에서 두 포로기 자료인 H가 P보다 다소 앞선다는 종래의 지배적 견해를 유지한다; Cf. Philip J. Budd, *Leviticu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96); Robert H. Pfeiff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8); Hans Jochen Boecker, *Law and the Administration*; J. Alberto Soggi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3rd ed. (London: SCM Press, 1989).

www.kci.go.kr

아니 야웨 엘로헤켐)라는 표현이 함께 연결되어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다("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개역 개정판]). 레위기 19장은 그 이전 자료들과는 달리 정형화된 표현으로 간결하고 함축적인 어체로 안식일 준수의 신학적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안식일이 절대주이신 출애굽과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기 전반부(레 19:1–18)와 후반부(레 19:19–37)에서 각각 강조되며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표현은 레위기 19장 18절(וְאָהַבְתָּ לְרֵעֲךָ כָּמוֹךָ '베아합타 [르레아카] 카모카' : 전반부 말미)에서 단수로 나오는 것으로서, 34절(וְאָהַבְתָּ לוֹ כָּמוֹךָ 베아합타 [로][20] 카모카: 후반부 말미)에서 병행을 이루며 다시 언급된다. 34절에서는 전체적으로 복수형이 나오는 가운데 이 표현만 단수형으로 나온다("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개역 개정판]). 이것은 이 표현이 정형화된 표현일 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그 내용을 강조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여러 용례들은 이것들이 정형화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70인역에서도 단수형으로 나온다.

---

20) 문법상의 목적어는 대명접미사 לו로 표기되어 있지만 내용상의 실제적 목적어는 앞의 הַגֵּר이다.

www.kci.go.kr

레 19:18 καὶ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and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레 19:34 καὶ ἀγαπήσεις αὐτὸν ὡς σεαυτόν(and thou shalt love him as thyself)

이 표현은 이곳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표현 구조는 신약성경에 그대로 나타난다(마 22:39, ἀγαπήσεις[직설법 미래 능동 2인칭 단수, 명령 현재 능동 2인칭 단수]τὸν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ὸν: 'and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21] 이러한 수사학적 특징자체는 그 신학적 중요성을 나타낸다.

신명기 법전에는 '사랑하라'(2인칭 명령)는 단어의 목적어로 야웨가 언급된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조된다. 이것은 신명기 법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나타난다.

신 11:13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כֶם 르 아하바 에트 야웨 엘로헤켐: to love Yahweh your God

신 11:22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כֶם 르 아하바 에트 야웨 엘로헤켐: to love Yahweh your God

---

21) 마 5:43-44의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서 네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반영이다. 물론 네 몸처럼이 빠져 있으나 레위기의 인용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쿰란 공동체에서도 언급되는 해석이며, 그 당시 유대교 밖의 세상에서도 발견되는 표현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예수님이나 마태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다.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203;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BC; Dallas: Word Books, 1993), 134.

www.kci.go.kr

신 19:9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ךָ 르 아하바 에트 야웨 엘로헤카: to love Yahweh thy God

신 30:6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ךָ 르 아하바 에트 야웨 엘로헤카: to love Yahweh thy God

신 30:16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ךָ 르 아하바 에트 야웨 엘로헤카: to love Yahweh thy God

신 30:20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ךָ 르 아하바 에트 야웨 엘로헤카: to love Yahweh thy God)

이 אהב(아하브) 동사는 야웨(하나님)와 밀접히 연결되어 나온다. 그중, לְאַהֲבָה אֶת־יְהוָה אֱלֹהֵיכֶם 르 아하바 에트 야웨 엘로헤켐(카)의 형태는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신 11:13; 11:22; 19:9; 30:6, 16, 20).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장 3절은 거의 이 표현의 작은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22)]

신명기 법전에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11장 1절에서, וְאָהַבְתָּ אֶת־יְהוָה אֱלֹהֶיךָ '베아합타 에트 야웨 엘로헤카'로 나온다.[23)] 레위기 19장 18, 34절과 동일

---

22) 신 10:12(לְאַהֲבָה אֹתוֹ וְלַעֲבֹד אֶת־יְהוָה אֱלֹהֶיךָ 르 아하바 오토 르아보트 에트 야웨 엘로헤카[전치사 르 + 칼 부정사 연계형]: to love and to serve Yahweh thy God); 신 13:3(MT 4, אֹהֲבִים אֶת־יְהוָה אֱלֹהֵיכֶם 오하빔 에트 야웨 엘로헤켐: those who love Yahweh your God); cf. 신 5:10의 경우는 야웨가 목적어로 나오는 대신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온다(לְאֹהֲבַי 르 오하바이[전치사 ל + '아하브' 동사의 칼 남성 복수 분사 + 1인칭남성단수] those who love me).

23) 이 표현들은 신명기 법전의 서두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서 그 편집 시기는 대개 포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A. D. H. Mayes, 신 6:4–9를 '본래의 신명기'(original book of Deuteronomy) 즉, '첫 번째 신명기적 편집'(the first deuteronomistic editing) 이전에 있던 전승층으로 보고(A. D. H. Mayes, *Deuteronomy*, 47–48) 신 11:1은 포로기의 '후기 신명기적 첨가'(later deuteronomistic addition)으로 본다(idem. pp. 43–46).

www.kci.go.kr

한 동사 형태(ו 바브 전환법 + 'אהב 아하브'의 단수 2인칭 완료, 의미상 명령)가 나온다. 그러나 여기(신명기 법전)에서 'אהב 아하브'의 목적어는 '야웨 하나님'이다. 이것도 여기에서는 관용적 표현에 가깝다.

이것이 레위기 19장에서는 목적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גֵּר 게르'(객, 나그네)로 바뀌어 나온다. 신명기 법전에도 이 내용은 나온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이 동사가 2인칭 복수형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וַאֲהַבְתֶּם 바아합템, 너희들은 게르를 사랑하라). 그러나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후대 첨가로 여겨지는 본문이다.[24] 레위기 19장 34절에서는 이것이 2인칭 미완료 단수에, 실제적 목적어로 '하나님'이 아니라 '게르'를 취한다. 이 단수 명령이 정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게르'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그네'(גֵּר 게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며 이것은 이미 언약법전에도 나온다.

> 출 22:21, 너는 이방 [나그네 גֵּר]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 출 23:9, 너는 이방 [나그네 גֵּר]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גֵּר] 되었은즉 [나그네 גֵּר]의 정경을 아느니라
> (cf. 출 20:10,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 גֵּר]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3:12; 너는 육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 종의 자식과 [나그네 גֵּר]가 숨을 돌리리라).

---

24) A. D. H. Mays, 211; G. 폰 라트, 「신명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85-86; 원제는 Gerhard von Rad,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www.kci.go.kr

여기에서, 아직 '게르'를 사랑하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3장 9절에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גֵּר)였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신명기 법전에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랑의 '명령동사'와 이 말은 서로 연결되어 나오지 않는다.

신 10: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 גֵּר]를 사랑하사[25]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신 14: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 גֵּר]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cf. 신 24:14, 17, 19, 20, 21; 26:11, 12, 13; 27:19; 28:43; 29:11; 31:12).

성결법전에서 신명기 법전에서와 유사한 표현들이 나온다.

레 19: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גֵּר]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3:22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 גֵּר]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25)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이심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나그네' + '사랑하라'(정형화된 2인칭단수 명령)과는 다르다.

www.kci.go.kr

신명기 법전에 오게 되면, 이 단어 '게르'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표현이 연결되어 나온다. 그러나 아직 '사랑하다'라는 '명령동사'와 '게르'가 직접 연결되어 나오는 표현이 없다(일부, 후기 신명기적 편집층[post-deuteronomistic layer]를 제외, cf. 신 10:19). 'אהב 아하브' 동사는, 일부 하나님이 열조를 사랑하심(신 4:37; 10:15)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신 7:13)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온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말(사랑하라, אהב 아하브 동사의 명령)이 '네 몸처럼' כָּמוֹךָ 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두 번 반복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정형화된 문장구조는 후반부의 표현인 레위기 19:34에서 그 실제적 목적어로 '게르'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선포하게 된다.

레 19:18 וְאָהַבְתָּ לְרֵעֲךָ כָּמוֹךָ 베아합타 [르레아카] 카모카'

레 19:34 וְאָהַבְתָּ לוֹ כָּמוֹךָ 베아합타 [로 (하게르)] 카모카'

이 두 명령은 이중구조체로 되어있는 레위기 19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미에서 서로 병행을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그네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함을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이것의 대표적 표현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 표현이 레위기 19장의 구조적 특징 전반부(1-18절)와 후반부(19-37절)가 병행을 이루는 이중 구조의 전반부 말미와 후반부 말미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병행을 이루며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 두 개의 표현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www.kci.go.kr

보여주는 것이다.[26]

포로기의 신명기 법전에는 아직 'אהב 아하브' 명령동사와 'גֵּר 게르' 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 는 표현은 성결법에서 정형화되어 나타나며 신약에도 고정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성결법전에서는 이 동사구 'אהב 아하브' (사랑하라) + 'כָּמוֹךָ 카모카' (네 몸처럼)와 'גֵּר 게르' 가 연결되어 나온다. 신명기 법전에서 '아하브' 동사가 '하나님' 과 연결되어 나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독특하게 이것이 '게르' 와 연결되면서 '게르' 를 보호하는 의무가 한 차원 더 상승한다. 신명기 법전에서 정형화되었던 '사랑 + 하나님' 이, 이제 성결법전에서 '사랑 + 게르' 가 된 것이다. 더욱이 이 사랑의 명령이 '네 몸처럼' 과 연결되어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법전에는 이 두 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각각 별도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특별한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게르' 가 '하나님' 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게르' 를 사랑하되 '하나님' 처럼 사랑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처럼' 곧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내용적 면모는 신약에서도 나타난다(엡 6: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μετ' εὐνοίας δουλεύοντες ὡς τῷ κυρίῳ [as to the Lord] καὶ οὐκ ἀνθρώποις]).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 네 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소중한 의무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선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에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는

26) 박철우, "성결법 (레위기 17–26장)의 구조와 신학 연구."

www.kci.go.kr

이유였다(암 2:4–5, 6–16; 3:1–2; 5:6–24; 호 4:6; 12:5–6; 사 1:2–17; 5:7, 20–25; 9:13; 10:1–4; 17:10; 58:5–11; 미 6:6–8, 9–16; 렘 2:6–8, 19; 4:1–4; 5:20–31; 6:10–15; 8:7–12; 22:13–17; 겔 18:21–23; 20:20; etc.).

그러나 여기에서 경계의 의미가 첨가된다. 정형화된 이 특별한 표현자체가 이방인들, 나그네,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선포가 뒤이어 나오는 אֲנִי יהוה אֱלֹהֵיכֶם(나는 야웨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선포이다.[27] '게르'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지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하지만, 궁극적인 역사의 참 주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는 것이다. אני יהוה(나는 야웨다), 이것 또한 예언서의 근본적 고백이요 선포이다.[28]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님이시다. 이 레위기 19장은 예언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사랑이라는 말로 승화하고 있다는 더 발전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담긴 말씀으로 제시하신 두 말씀(마 22:37–40) 중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은 문장 구조상 레위기 19장 18(34)절과 유사하다.

신 6:5 {베아합타} 〈에트 야훼 엘로헤카〉 [베콜 르바브카 우베콜 나프슈카 메오데카]

레 19:18(34) {베아합타} 〈르레아카(로)〉 [카모카]

동사형과 수, 시제가 같고({베아합타} 신 6:5 // {베아합타} 레 19:18(34)),

27) 위의 II장, 1 참조

28) 위의 II장, 1 참조

www.kci.go.kr

그다음 목적어가 나오고(〈에트 야훼 엘로헤카〉 신 6:5 // 〈르레아카(로)〉 레 19:18(34)), '어떻게'에 해당되는 부사구([베콜 르바브카 우베콜 나프슈카 메오데카] 신 6:5 // [카모카] 레 19:18(34))가 병행으로 나온다. 그리고 목적어와 부사구에서 각각 '너의'를 가리키는 2인칭 단수 접미대명사 '카'가 연결되어 나온다. 이것은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택은 '수사학적 절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가장 약자에 들어가는 '게르'를 사랑하되[29] 이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서 '나는 야웨다'라는 말과 '너희도 애굽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내가 야웨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의도이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이러한 것을 절묘하게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30]

이러한 신학은 신명기 법전, 언약법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다.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의 선포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선포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이 '내가 거룩

---

29) 게르의 사회적 위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다양하다(공민권이 없는 거류자에서 개종자에 이르기까지, 특히 P와 같은 후기 본문은 이들을 개종자의 범주로 다룬다[cf. 사 56:3, 6], D. Kellermann, "גּוּר gûr; גֵּר gēr",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77), 439–449; R. Martin-Achard, "גּוּר gûr to sojour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307–310; idem, "נֵכָר nēkār", *TLOT*, vol. 2, 739–741;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5), 74–75). 필자는 여기에서 레 19: 33–37 본문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에서 고아 과부와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로 여겨진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출 22:21–2; 신 10:18; 14:29; 16:11, 14; 24:17, 19, 20–21; 26:12–13; 렘 7:6; 22:3; 겔 22:7; 슥 7:10; 말 3:5; 시 94:6; 146:9).

30) 예수님은 레위기 19장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확대시킨 것이다(cf.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www.kci.go.kr

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다(신 10:18–19; cf. 요 13:14–15). 이것은 신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명령('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요한일서 3장의 사랑의 명령도 마찬가지이다(cf. 요 14:21; 15:9–14; 엡 5:1–2; 6:7; 골 3:23–24; 약 2:8–9 등). 특히 에베소서 5장 2절의 καθως(like––)로 표현된 내용은 이러한 닮음의 의미를 기독론적 차원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καθως)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는 표현으로 변환되어 표현된다. 이것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고 순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성숙한 사랑의 인격체들이 되며 그렇게 살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내용이 이미 구약의 여러 법전들 가운데 선포되어 있는 기본적 내용이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은 이것을 특별한 정형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 특별하고 포괄적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포를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어 '네 이웃' (רֵעֲךָ 레아카, 레 19:18)이라는 말도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 4회(רֵעֲךָ '네 이웃', 출 20:16, 17[3회])나오며, 신명기 5장 십계명에서도 4회 나온다(רֵעֲךָ '네 이웃', 신 5:20, 21[3회]). 이 표현은

www.kci.go.kr

언약법전에서 10회에 걸쳐 나오는 것으로서 출애굽기 전체 17회 중 9회가 출애굽기 21–22장에 나온다(רֵעֵהוּ '그의 이웃', 출 21:14, 35; 22:6, 7, 8, 9, 10, 13, 25).[31] 신명기에는 총 16회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신명기 법전(신 4:44–30:20)에 나온다.[32]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성결법전에만 4회 나오는데(רֵעֵהוּ 레 19:13, 16, 18; רעֵהוּ 20:10), 그 중 19장에만 3회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이 표현이 법적 용어이며, 특히 이스라엘에게 이 이웃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그들의 공동체의 공평과 평안에 대한 깊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전체중 이 말이 사랑과 연결되어 나오는 곳은 레위기 19장뿐이다. 이것은 이장이 사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련하여 '십계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
>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

'언약법전'에서는 다음과 같다:

> 출 22: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

31) Gerhard Lisowsky,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58, 1981), 1343.

32) Gerhard Lisowsky, *Konkordanz*, 1343(רעֵהוּ 신 5:20; 5:21[3회]; 15:2; 19:5, 11, 14; 22:24, 26; 23:25; 23:26[2회]; 24:10; 27:17, 24); 신 4:44–30:20은 A. D. H. Mayes가 '두 번째 신명기적 편집자'(second Deuteronomistic editor)의 결과물로 보며, Hans Jochen Boecker가 확대된 신명기 법전이라고 보는 블록이다. 참조, 위의 Ⅱ. 2.

www.kci.go.kr

'신명기 법전' 에는 다음과 같다:

신 15: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신 19: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찌니라

신 23:24,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것이요

신 23:25,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 말찌니라

신 24:10,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라

신 27:17,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찌니라

이와 같이 '십계명', '언약법전', '신명기 법전' 에도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언급되어있다. 그러나 아직 '사랑의 명령' 으로 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에서 이 말(네 이웃 רֵעֲךָ)은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베아합타(וְאָהַבְתָּ 사랑하라) + ל + 카모카(כָּמוֹךָ 네 몸처럼)' 와 연결되어 사랑의 명령으로 정제되어 나타난다.

www.kci.go.kr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וְאָהַבְתָּ לְרֵעֲךָ כָּמוֹךָ)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34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레위기 19장이 갖는 신학적 문학적 독특성이다. 이러한 것이 나그네에 대한 사랑으로 그 폭을 넓힌 것이다. 또한 이 이중 구조체에서 나타난 레위기 19장 18절과 34절의 병행 특히 "르레아카(לְרֵעֲךָ 네 이웃)"과 "로(לוֹ) 하게르[הַגֵּר 나그네, 객, 타국인])"의 병행적 관계는[33], "'게르(גֵּר)'는 '네가 사랑해야할 이웃임(וְאָהַבְתָּ 베아합타)"을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웃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라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큰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근본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모든 율법과 예언의 핵심으로 보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우리의 다문화 다민족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다.

3. 결론

레위기 19장은 성서신학의 중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 본문은 구조적 차원에서 그리고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사학적 특

33) 레 19:18, 'וְאָהַבְתָּ לְרֵעֲךָ כָּמוֹךָ 베아합타 [르레아카] 카모카'
레 19:34 'וְאָהַבְתָּ לוֹ כָּמוֹךָ 베아합타 [로 (하게르)] 카모카'

www.kci.go.kr

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레위기 19장의 편집자는, 나는 야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등과 같은 핵심적 본문들을 정형화된 본문의 형태로 사용하며 그 내용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그 이전의 여러 법적전통(언약법전, 신명기 법전, 십계명 등)의 표현을 발전 또는 계승시킨 결과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야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다'는 표현 등은 신약에서도 고정된 표현으로서 인용되는 내용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학적 특징(특별히, 정형화된 표현, 병행구)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명백한 대답을 주고 있다. "'게르'는 '네가 사랑해야할 이웃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나그네 과부 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큰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이다. 특히 이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다문화 다민족적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거룩한 삶의 핵심이며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시며 강조하신 가르침이다.

4. 참고문헌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Th.D. 논문, 2007.

박철우, "성결법 (레위기 17-26장)의 구조와 신학 연구", 「신학사상」 70집(1990년 가을), 589-642.

Beasley-Murray, George R, *John* (Waco: Word Books, 1987).

www.kci.go.kr

Boecker, Hans Jochen, *Law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e Old Testament and Ancient East* (Minneapolis: Augusburg, 1980); 원제 *Recht und Gesetz im Alten Testament und im alten Ori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Budd, Philip J., *Leviticu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96).

Childs, Brevard S., *Exodus* (OTL, London: SCM Press, 1974).

De Vaux, Roland,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65).

_____, *Historia Antigua de Israel*, I (Madrid: Ediciones Cristiandad, 1975); 원제 *Histoire Ancienne d'Israël* (Librairie de Coffre, 1971).

Douglas, Mary,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Durham, John I., *Exodus* (Waco: Word Books, 1984).

Hagner, Donald A., *Matthew 1–13* (WBC, Dallas: Word Books, 1993).

Jacob, Edmond, 「구약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9); 원제 *Theologie de L'Ancient Testament* (Neuchatel: Delachaux et Niestle Editeurs, 1955).

Keener, Craig S.,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Kellermann, D., "גּוּר gûr; גֵּר gēr",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77), 439-449.

Knohl, Israel, *The Sanctuary of Silence* (Minneapolis: Fortress, 1995).

Lindars, Barnabas, *The Gospel of John*,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82).

Lisowsky, Gerhard, *Konkordanz zum Hebräischen Alten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58, 1981).

www.kci.go.kr

Martin-Achard, R. "גּוּר gûr to sojourn",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I, eds. Ernist Jenni/Claus Westerman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307-310.

_____, "נָכְרִי nēkār",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eds. Ernist Jenni/Claus Westerman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7), 739-741.

Mayes, A. D. H., *Deuteronomy* (NCBC,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81).

Milgrom, Jacob, *Leviticus 17-22* (AB, New York: Doubleday, 2000).

_____,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2004).

Morgenstern, J., "The Decalogue of the Holiness Code." *HUCA* 26(1955), 1-27.

Noth, Martin, 「레위기」,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원제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8).

Pfeiffer, Robert H.,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1, 1948).

Propp, William H. C., *Exodus 1-18* (AB, New York: Doubleday, 1998).

Soggin, J. Alberto,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3rd ed. (London: SCM Press, 1989).

Von Rad, G. 「신명기」,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원제 *Das fünfte Buch Mose: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Wildberger, Hans, *Jahwes Eigentumsvolk* (Zurich: Zwingli Verlag, 1960).

Zimmerli, W., *I Am Yahweh*, ed. Walter Brueggemann (Westminster

www.kci.go.kr

John Knox Press, 1982), 1–28; 원제 *"Ich bin Jahwe", Gottes Offenbarung* (Munich: Chr. Kaiser Verlag, 1969), 11–40.

www.kci.go.kr

검색어

정형화된 표현
레위기 19장
게르
구약의 법전들
전승

Studies on the Theology of Lev 19 on the Basis of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other Legal Codices: Focusing on 5 Stereotyped Expressions

Cheol-Woo Park, Ph. 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Nazarene University

Leviticus 19 is a theological essence of the Old Testament. It has very unique rhetorical particularities in developing its theology by using stereotyped expressions. I tried to examine its traditio-theological interconnectedness with other legal corpora of the Old Testament by analysing 5 stereotyped expressions("I am Yahweh", "Your should be holy as I am holy", "Keep my Sabbaths", "Fear your God",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It shows that the compiler of Lev 19 emphasized his theological views by using such stereotyped expressions. I could observe theses expressions

www.kci.go.kr

were the result of inheriting and developing further the other Old Testament legal corpora such as Covenant Law, Deuteronomic Law, Ten Commandments etc. Particularly, the expressions like "I am Yahweh", "You should be holy as I am holy",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are those which were cited as stereotyped expressions in the New Testament. These expressions should be regarded as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universal love for all mankind proclaimed by Jesus Christ. The compiler of Lev 19 gives us the clear answer for such fundamental questions as who God is and how we should live, on the basis of such rhetorical devices(esp. stereotypical expressions and parallelism). The text also provides us with a meaningful direction of Christian living in multi-cultural societies.

www.kci.go.kr

Keywords

Stereotyped expressions

Lev 19

gēr

Legal codices

Tradition

■ 투고일: 2012년 6월 30일
■ 심사일: 2012년 7월 20일
■ 게제 확정일: 2012년 7월 25일

www.kci.go.kr